### 华山四季州宝春71台春

2011 1.2.3.4 통권 제75호 www.ksm.or.kr

기희 북한의 식량상황, '진실이 무엇일까요? - WFP 식량 보고서를 통해 본 북한의 식량난



### 2011 1.2.3.4 통권 제75호 www.ksm.or.kr

### 八年21四季43番71名を











### 목치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 인도적지원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을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 평화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 남북통합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6회 임창순상 수상

인터뷰 06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사는 가락동 교회 청년부를 찾아서

나눔. 봉사를 실천하는 청소년을 만나다

보하의 식수절(植精節)과 사림

사업보고 12 북녘어린이 내복보내기 캠페인 - 생명을 살리는 3℃

"중단 3개월 만에 다시 전달된 빵과 콩우유가루"

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글문화학교

16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개성사업 평가회 개최

사업일지 18 한 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한의 식량상황, 진실이 무엇일까요? - WFP 식량 보고서를 통해 본 북한의 식량난

후원자명단 22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11년 1+2+3+4월호 통권 제75호 | 발행인 | 영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 편집인 | 강영식 | 발행일 | 2011년 4월 30일 **| 주소** |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 | 전화 | 02)734-7070 | 팩스 | 02)734-8770 ksmseoul@ksm.or.kr www.ksm.or.kr 디자인 및 인쇄 인디디자인

【고문】 강문규, 김성훈, 박경조, 서영훈 【상임공동대표】영 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공동대표】 고희선, 김세영, 김영수, 김정곤, 박남수, 박원철, 박준영, 윤장현, 이수구, 이용선, 정 여, 정의화, 천정배, 최대석 【감사】김영환, 전 성 【사무총장】강영식 [홍보편집위원장] 김효정

###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아됩니다

지난 4월 7일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악화된 식량 사정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남 북 간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식량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음에도 반기문 총장이 공개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북한의 식량난이 그만큼 우 려스러운 상황에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3월 말 영국을 방문한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북한을 강타한 60년 만의 한파와 수확량 부족 으로 앞으로 두 달이 고비"라며 긴급한 식량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유엔아동기금(UNICEF)으로 구성된 '긴급식량안보조사단' 도 2월 21일부터 근 20일간 북한의 40개 군지역 을 현지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소 61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별취약계층이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해 있으며 43만 톤의 식량을 춘궁기인 5월중 기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제사회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또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모니터링이 보장된다'면 2009년 중단된 대북 식량지원 사업의 재개를 신중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식량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인식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많은 북한주민들이 굶주리고 있 다는 사실입니다. 작년도 곡물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든 군량미 비축 때문이든, 아니면 내년 김일성 주석 100주년 생일을 위한 식량조달 목적이든 간에 어느 쪽도 현재 북한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굶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 한주민들의 식량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조치인 '5,24조치' 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5 24조치'는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 체제가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합인데 과연 대북 식량지원이 북한체제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일까요?

지난 4월 12일, 658명의 5대 종단 종교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종교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고. 우리 인류의 양심상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사 위기에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인도적인 입장에서 식량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 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늘 기슴에 담고 살아가는 종교 인들로서는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좌시하고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며 통일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말로써가 아 닌 통일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작년 11월 연평도 사건 이후 근 4개월 만에 통일부가 우리 단 체를 비롯한 몇몇 민간단체들의 북한 영유아 지원을 허용한 것은 잘 한 일이지만 극히 일부분의 지원에만 머무른다 면 '생색내기' 라는 질타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인도주의 지원은 지 속하겠다' 라는 원칙을 더 이상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줄 때입니다. 우리 정부의 결단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 千日之子付至高了日至 7116至1 012次十分次

청명문화재단은 한학과 서예, 금석학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긴 청명 임창순 선생을 기리고자 설립된 재단으로 민족 공동체의 민주적, 평화적 발전에 공헌한 사회실천가들을 정해 매년 '임창순상'을 시상하고 있다. 청명 임창순 선생이 평생추구했던 평등, 자유. 인권의 실현과 평화 통일의 촉진에 학술 또는 실천으로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이 상을 준다.

청명문화재단(이사장 강만길 교수)에서 시상하는 제 6회 임창순상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 청명문화재단 이사회에서 밝힌 수상자 선정 이유를 보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6대 종교 단체를 포함한 주요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1996년 6월에 창립한 국민운동 조직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 간의 반목과 대립을 깨고 한반도의 평 화 정착과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이루어 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도적 대북 지원과 남북 간 교류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최근의 정황에도 어린이 급식 지원 사업과 보건 의료 사업을 꾸준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민족의 어울림과 하나됨을 위한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이러한 활동은 임창순 정신의 확장과 발전의한 양식이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4월22일(금) 저녁 6시 프레지던트 호텔 모짤트홀에서 열린 시상 식에는 청명문화재단 관계자들과 학계 원로들,〈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상임공동대표, 후원단체와 후원회원, 대북 지원단체 등 많 은 분들이 참석하여 수상을 축하해 주었다. 강만길 청명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 말에서 "임창순 선생은 독재에 맞서 싸운 진보적 운동가이며 평화 통일을 염원한 우리시대의 선각자였다"고 하며 임창순상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 상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인 인명진 목사와 최완규 교수가 대표로 받았으며, 최완규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청명문화재단이 수상자 선정 이유로 밝힌 글을 인용하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문화현상과인도주의와 평화라는 주제를 다루는 사유와 실천에 앞장 설 것"을다짐했다.

축하 인사는 김성훈 고문(전 농림부 장관), 어린이 어깨동무 권근 술 이사장이 해 주셔서 더욱 의미있는 수상의 자리가 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임창순상의 명예를 이어 나가도록 민족 화해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 그리고 민족 정 체성의 전향적 재확립이라는 거대한 역사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 속 드린다. 爲









최완규 대표의 수상소감② ③ ④ 시상식장 모습

### 아름다운 사감들이 모떠사는 가락동 교회 청년부를 찾아서

BaB 캠페인에 참여한 가락동 교회 청년부를 찾아 후원동기와 후원금 모금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효정 홍보편집위원장



목련까지 활짝 핀 따 사로운 봄날 오후. 가락동 교회 청년들 을 만나러 가는 길은 봄맞이 나가는 소녀 처럼 가슴이 설렌다. 지난 겨울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과 처 음 인연을 맺은 가락

동 교회 청년들은 어떤 마음으로 북한동포를 생각하게 되었을까 몹시 궁금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교회 앞 에서 반갑게 맞아 주는 김은희 선교부장님의 고운 모습 에서 금새 친근감이 느꼈진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자'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인터뷰를 극 구 사양하셨지만 '좋은 일을 널리 알려서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게 하자'는 설득에 응해 주어 정말 고마웠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 께, 보내 주신 후원금은 온성군 어린이 급식사업인 BaB 캠페인 운동에 잘 쓰여지고 있다는 보고를 했다. 'BaB

캠페인은 온성군 소재 유치원 어린이에게 1년 간 매일 빵 1개와 콩우유가루를 보내고, 추석과 설에는 선물상자 를, 6월개월마다 신발과 옷을 전달하는 후원행사입니 다. '보고를 들은 한인관 청년교회(청년부) 목사님은 '적은 후원금이 그렇게 많은 어린이를 도울 수 있다니 좀 더 모금을 할 걸 하는 마음이 든다'고 아쉬움을 나타

어떻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알고 또 후원금 을 모으게 되었나 하는 질문에 한인관 목사님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라며 기도 중에 주님이 이끄시는 소리를 들었다며 겸손하게 말한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 남쪽에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추운데 북한 동포들은 이 겨울을 어떻게 날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에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 보자'해서 교회의 비 축 예산으로 가볍게 시작한 일이 청년들도 십시일반으로 동참하여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한다.

신뢰할 수 있는 단체, 그리고 바로 전달이 가능한 단체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후원 경로를 찾던 중 사회복 지학을 전공한 청년으로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추천 받아 직접 연락을 해서 후원에 동참하게 되었단다.

한인관 목사님은 금강산으로 신혼여행을 다녀 올

정도로 북한 선교와 북한 동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대 학 때 졸업 여행으로 갔던 금강산 방문이 계기가 되었다 고 하니 동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분인 것 같다.

북한 주민들이 일터에 동원된 모습이나 밤이면 전 기가 부족해 온정리 일대가 깜깜한 암흑으로 변한 일 등 이 가슴 아프게 남아 있다고 한다.

청년교회의 김은경 부장, 최동준 부회장도 후원이 너무 작아 부끄럽다며 말을 아끼는데 앞으로 북한 동포 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교회 차원에서 많은 동참을 이 끌어 내고 싶다고 한다.

한인관 목사님은 탈북자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여 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탈북자 역시 다문화 가정처럼 새로운 이주자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듬고 나아가야 할 형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바라고 싶은 말씀을 부 탁 드리자 정치적인 문제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그 선두에 서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가락동교회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북한 동포에 대한 관 심과 후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인터뷰 시기가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이 라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아름다운 땅〉이라는 이름의 청년교회 문집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 회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땅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든다. 🚜



### 가락동교회 후원내역

가락동교회 청년부는 함경북도 온성군 두루봉 유치원 24명 의 어린이에게 1년간 매일 빵과 콩우유가루, 생필품 등을 후원합니다





### 나눔, 봉사를 실천하는

## 智生地量地比け

김효정 홍보편집위원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하 우리민족)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조윤(17) 조현(14) 남매를 임창순상 시 상식장에서 만났다. 두 청소년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한 이야기를 실었다.

- 길 현이 윤이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 윤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 가서 많이 바빴어요. 자립형 사립학교라 학교 기숙사에서 살아요.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는데 오늘 중간고사 끝나서 겨우 온 거에요.
- 🔁 저도 중학생 되었어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시험 공부도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윤이 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개구쟁이 어린이들이었는데 벌써 중고등학생이 되었다니 세월이 참 빠르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잘 자란다.

- 김 우리민족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윤이가 이야기해 주세요.
- 옾 초등학교 6학년 땐가...엄마가 우리민족 행사장에 데리고 갔어요.

옆에 함께 자리한 남매의 어머니가 설명을 해 준다.

"7년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능나눔자원봉사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우리민족을 연결해주었어요. 처음 맡은 봉사가 기빙엑스포 리플렛 제작이었어요."

기빙엑스포는 2005년 여러시민단체가 연합으로 대학로에서 사흘 간 각 단체의 홍보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벌인 캠페인 행사다. 윤이 현이 어머니는 그 때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홍보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식지 편집에 기여하고 있다.



- 김 우리민족의 다른 행사에도 참여했죠? 기억 나는 재미있는 행사, 현이가 소개해 주세요.
- 📵 후원의 밤에는 거의 갔구요. 북한산에서 퀴즈 맞추고 선물 받은 것이 기억 나요.
- 爰 저는 고창 간 거요. 고인돌 공원, 고창읍성, 선운사, 미당 서정주 문학관
- 길 윤이가 기억력이 좋네요. 그 때 꼬마 친구들도 와서 윤이가 세 살 동생을 업고 다닌 것도 생각 나네요. 윤이는 그 때부터 의젓하고 어른스러웠어요.
- 현 아! 또 중앙 박물관
- 길 맞아요.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 중앙박물관 답사도 했지요. 러시아 볼고그라드에서 온 연주단의 음악회도 갔었구요. 정말 우리민족의 고참 회원이 맞네요.
- 김 친구들에게 우리민족에 대해 이야기 한 적 있나요?
- 요 그럼요. 자랑스럽게 이야기 해요. "너희들 용돈 아껴서 북한 동포 돕자"고 권유해요. 천암함 사건 때도 아이들과 논쟁을 했는데, 김정일은 미워도 북한 어린이를 돕자고 하면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설득시키기 어려웠어요
- 김 현이에게 물어 볼게요. 후원회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엄마가 그냥 주시나요?
- 현 설거지 500원, 강아지 털 말려 주기 500원 이렇게 모은 돈으로 내는데 겨우 햄버거 한 개 먹을 돈으로 북한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다니 기뻐요.
- 음 저는 학교 매점만 몇 번 안 가면 쉽게 모을 수 있죠.
- 김 윤이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 을 엄마의 영향인지 몰라도 시민단체 운동에 관심이 많아요. 생협이나 환경 운동, 소비자 운동이 재미있어요. 중학교 때도 봉사활동을 그런 분야에서 했고 앞으로 대학에서 좀 더 깊이있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요.
- 현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누나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 길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하면서 오직 공부에만 열중하고 스트레스를 연예인이나 텔레비전으로 해소하는데, 우리 두 친구는 좋은 엄마 덕분에 일찍부터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기를 수 있어 행복하지요.
- ② 현 네. 앞으로도 우리민족에 열심히 참여할 거에요.
- 길 오늘 이렇게 와 주어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자기의 생각과 포부룰 또렷이 말하는 두 청소년에게서 자신감과 긍정적인 힘이 느껴졌다. 이들과 같은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한 민족의 화합이나 동질성 회복은 그리 염려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열린 사고 로 북한 동포를 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윤이, 현이가 유엔기구에서 한국 대표로 일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

# 식수절(植樹節)과 산림

정민숙 새터민, 가명



북한은 올해 3월 2일 식수절을 맞아 평양시와 전국 각지에서 전례 없는 나무심기 궐기모임을 진행했다. 북 한의 식수절은 김일성이 평양 문수봉에 올라 나무를 심 었던 날인 4월 6일(1946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다가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이 세워진 1999년부터는 3월 2일을 식수절로 정하고 주변의 수 목원과 혁명사적지를 우선적으로 산림화하도록 했다.

식수절을 이날로 변경한 것은 1946년 3월 2일 김 일성과 김정숙, 김정일이 함께 모란봉에 올라 산과 들에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하라고 교시한 날이라는 이유다. 이 시기 북한 기후는 땅이 녹지 않고 함경도 지역은 4월

이 지나도 해발고가 높은 산은 얼어 있다. 그런데도 날 짜를 앞당긴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무를 빨리 많이 심 어야 될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해마다 나무심기를 해도 민둥산이 늘어가자 북한은 작년부터 산림 조성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반 면 식수절과 산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은 지난 시기 와 현재는 차이가 있다. 북한 주민에게 나무심기는 나라 의 산림 자원을 윤택하게 하는 애국적인 사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뙈기밭이라도 일궈야 할 삶의 터전을 빼앗 아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마다 나무심기를 해도 민둥산이 늘어가자 북한은 작년부터 산림 조성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 나무심기는 나라의 산림 자원을 윤택하게 하는 애국적인 사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뙈기밭이라도 일궈야 할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작하여 걸음걸이가 변변치 않은 노인네들까지 총동워하 여 나무심기를 한다. 산림보호원의 총지휘에 따라 정해 진 산에 나무를 심기 위해 학교 학생들은 새벽 6시에 출 발하여 도시락을 허리에 둘러 차고 삽과 곡괭이를 맨 채 로 수 십리 길을 걸어 산지에 도착해야 한다.

아카시아나 잣나무 묘목을 가득 실은 자동차가 산 골짜기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매 사람에게 80~100대 정도의 묘목을 세어 도급제를 준다. 나무심기에 앞서 묘 목의 종류에 따라 양쪽 몇m 간격을 보장한 다음 몇 Cm 정도의 깊이로 땅을 판다. 일정 정도의 부식토를 두텁게 깐 다음 그 위에 나무를 놓고 물을 주면서 흙을 덮어주 도록 교육한다.

그러나 이런 나무심기(식수절)도 경제상황이 비교적 좋았던 80년 대 일이다. 90년대에는 '정춘실 운동'에 따라 자력갱생을 위해 산을 벗기고 부업지를 개간해 식 자재 및 외화벌이 원천을 마련했다. 당 · 권력기관이 부 업지 조성과 소토지 개간에 제일 먼저 전력을 투하했고 모목이 다 타버렸다. 가족을 동원시켰다. 점차 생산 공장, 기업소는 물론 군 부대와 병원 대학교까지 모두 산에 매달려 먹을 식량을 해결했다 아울러 대량아사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이 미 심어놓은, 채 자라지 않은 나무를 마구 벌채해 땔감 으로 사용했다. 또한 쓸만하다 싶은 나무는 모두 중국에 팔아 갓냉이와 바꾸어 먹었다 2000년대에는 도시의 주민들이 산에 매달려 톱아 오름 수 있는 경사 각도의 나무는 다 찍어내고 불을 놓아 소토지를 일구었다.

소토지에서 첫 곡식은 감자와 보리였지만 차츰 시 간이 지나면서 품종도 다양해지자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매년 식수절이면 북한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시 서 큰 덕을 보게 되었다. 소토지에서 생필품까지 해결함 정도의 낟알을 걷어 들여 생활의 여유가 생겼고 국가 경 작지보다 훨씬 수확이 높아 소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애 정이 깊어갔다. 그러다보니 푸른 숲이 우거져야 할 산이 농경지로 변하고, 오히려 곡식을 심어야 할 수많은 국가 경작지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풀로 뒤덮여 놀고 있 다. 2009년 북한은 소토지를 없앨 것에 대한 중앙당지 시문을 내려 국가 경작지로 등록하였다. 4월부터 모든 세대가 600평의 땔나무림을 조성하도록 강요하여 전 지 역이 발칵 뒤집혔다.

> 온 가족의 생사가 달려있는 소토지에 나무를 심는 데 반발해 불을 놓아 다른 산으로까지 불길이 확대되었 고, 산속에 숨어 산림보호원을 때리기도 했다. 특히 낮 에는 법의 눈을 피해 열심히 나무를 심는 척하고 밤에는 다른 사람이 심어 놓은 나무까지 몽땅 뽑아 불태웠다. 특히 작년 봄에는 1억1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다 고 공표했지만 의도적인 산불방화로 어렵사리 키운 나무

> 이러한 이유로 북한나무심기 사업이 남한 단체들 의 지원에도 성과를 크게 내지 못하고 있다. 단속에도 한계가 있으니 북한주민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 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북한 산림조 성 노력은 에너지 문제와 식량난 등 근본적인 경제문제 의 해결과 함께 병행되어서 추진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정민숙님은 2004년 한국에 온 새터민으로 64호부터 연재하고 있습니다.

주) 정춘실운동 : 80-90년 자강도 전천군 상업관리소장인 정춘실이 산에 부업 지를 조성해 주민들의 먹거리를 해결하고자 한 운동

2011 1.2.3.4 11 우리민족서로돕기설동

### 북녘어린이 내복보내기 캠페인 - 생명을 살리는 3℃

북녘어린이에게 내복은 꼭 전달되어야 합니다.

황재성 지원사업팀 부장



원이 북녘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 성과 꽉 막혀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을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 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은 내복 지

올 1월 우리나라 전국 평균기온이 영하 4.4도 30년 만에 불어 닥친 추위였다지요. '따뜻한 남쪽 도시'부산도 영하 12도까지 내려갔으니 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남쪽보다 더 추운 북한의 겨울나기는 어땠을까요? 북한의 1월 평균기온은 영하 10.7도로 남한보다 무려 6도나 낮았습니다. 그래서였는지 형편이 낫다는 평양에 서도 노인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혹한의 피해 소식이 들 려왔습니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추위에 어린이들은 얼마나 추웠을까요. 북한 아동의 32%가 만성영양실조 라고 하는데 기초체력이 극도로 약화된 어린이가 느껴야 하는 추위는 상상 이상 이었겠지요

지난 1월 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굿네이버스,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대구),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월드비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등 7개 대북 인도지원단체는 공동으로 국산 아동용 내복 1만벌을구입해서 개성육로를 통해 북녘어린이이게 보내기로 하고 "북녘어린이 내복보내기 공동 캠페인"〈생명을 살리는 3℃〉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어 버린 남북관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한미군사합동훈련으로 인해 남 북간의 긴장관계가지속되었으며, 이 때문에 지원 일자 등 추진 일정이 계속 미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3월 중순이 넘어가버리고 남북 모두 내복지원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 갔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정부가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는 상황론에 빠져 북녘아이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좀더 일찍 내복지원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자책도 들었습니다.

4월에 들면서 후원자님들의 성금과 각 단체들이 긴급하게 마련한 후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늦더라도 내복을 보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 겨울에도 내복은 필요하고 또후원한분들의 따뜻한 정성은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복지원이 이루어지는 데로 추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회원 여러분들께 이메일진이나 저희 소식지를 통해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단 3개월 만에 다시 전달된 빵과 콩우유가루"

### 2011년 3월부터 온성군 유치원 어린이에게 빵과 콩우유가루 지원

오형윤 지원사업팀 간사

작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중단되었 던 함경북도 온성군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빵과 콩우 유가루 지원사업이 3개월 여 만에 재개 되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긴장된 남북관계 속에서 도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보내주신 후원자 분들이 있어 가능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염려와 관심속에 3월 4일, 재개된 첫 지원은 온성군 34개 유치원 2,500명을 대상으로 급식용 빵 15,000개와 콩우유가루 7,500봉지(2인 1봉지)가 5회에 걸쳐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세계협의회를 통해 지원되었습니다.

4월 또한 3월과 같은 양의 빵과 콩우유가루가 4회에 걸쳐 지원되었으며, 5월에는 더 많은 후원자님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44개 유치원 3,110명의 어린이에게 빵과 콩우유가루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후원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후원자님의 나눔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द्री में में इ. नं के हैं। इ. नं के हैं। इ. नं के मार्थ (क्या) क्या (क्या) के क्या क्या (क्या) के क्या क्या (क्या) के क्या

왼 쪽 선물상자(기념품) 전 달 후 받은 확인서 (인수증)

오른쪽 용재산리유치원에 물자를 전달 후 받 은 확인서(인수증)

### 지원현황

번호	지원 날짜	지원물품	지원대상
1	3월 4일	빵 15,000개 / 콩우유가루 7,500개	34개 유치원 어린이 2,500명
2	3월 11일	빵 15,000개 / 콩우유가루 7,500개	34개 유치원 어린이 2,500명
3	3월 18일	빵 15,000개 / 콩우유가루 7,500개	34개 유치원 어린이 2,500명
4	3월 25일	빵 15,000개 / 콩우유가루 7,500개	34개 유치원 어린이 2,500명
5	3월 31일	빵 15,000개 / 콩우유가루 7,500개	34개 유치원 어린이 2,500명
6	4월 8일	빵 18,750개 / 콩우유가루 9,375개	34개 유치원 어린이 2,500명
7	4월 13일	빵 18,750개 / 콩우유가루 9,375개	34개 유치원 어린이 2,500명
8	4월 20일	빵 18,750개 / 콩우유가루 9,375개	34개 유치원 어린이 2,500명
9	4월 29일	빵 18,750개 / 콩우유가루 9,375개	34개 유치원 어린이 2,500명

단체 및 개인 후원자 현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中山里專州亞智力並至 2011 1.2.3·4 13

### 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하글무화학교

이봄철 지원사업팀 부장

2005년에 시작하여 해마다 30~50명의 학생들이 우리 말과 글, 우리문화를 배우는 곳입니다. 사물놀이팀과 부 채춤팀 등이 있어서 각종 행사에서 우리문화를 알립니 다. 교장은 이봄철입니다. 현재 수업은 한글, 중국어, 영 어 등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습 니다. 한국어는 이곳에 유학온 유학생과 한국에서 오는 다. 이곳에서 초급 한글을 배운 후 높은 단계를 배우기 자원봉사자 분들이 중심이 되어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교사로 온 분들은 이봄철(05~07), 류정 숙 선생님(08~10). 정유정 선생님(09~10)이 활동하였 고 단기 자원봉사 선생으로서 이지선(한양대/09). 배윤 습니다. 💍 국(성균관대/09), 이자영(서강대/10), 엄요한(연세대

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글문화학교는 /10), 원종태(중앙대/10), 전수화(경상대/11)선생님이 다녀 갔습니다.

> 현재는 이봄철 선생과 김은정(볼고그라드 국립기술 대)유학생과 조선족 유학생이 우리말과 중국어 등을 가 르치고 있습니다. 고려인 동포 선생으로는 김뾰뜨르. 김 샤샤. 심이리나 등이 우리말을 배우며 가르치기도 합니 위하여 한국으로 유학을 추천하여 보내기도 합니다. 지 금까지 3명의 학생을 한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러시아 한글문화학교의 김은정 선생이 글을 보내왔





### 러시아 한글문화학교의 김은정 선생님의 편지

건물정 선생님 입니다. 권퓨터를 사용하 수 없어서 수익 작성하여 그은 보냅니다.

수 다 라고 그시간 그는 일주일에 나면 사무실에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서 하였네 관한 관심은 갈게 되면서 부터 하지 광汽 시작한

아나와 이기나는 자신들이 한국인이라서 한국이는 배우나고 했었다 のなりかる コンキュナミトのは モドロリイ 시다 대본의 221인아이트라 ZHIOFOIM 群岛 市园 彩色 新松气 "JUTH 就到 14年吧以, 스크 찾아서 윤녀은 들고, 가사 해석은 就是这时 改是 决立 不是完 经外经外间 部 被收货 到山北

제나와 게나 등 그 미위의 학생들은 한국한 지하면서 한국이름 배위 시작했습니다.

교과서 이외에도 영화와 드라아는 통해 한국문식, 자각의 명고등은 오대 केर हि, एक, लेलाक उरा रून, प्राह्म गाउनाम क्रोन्स्ट्रोह 반의 사는 두차계 맛있고, 선난에는

好社州 なまた が好見 から放行してい 610150171 स्त्रामा हर. नेपाल संदेखा, "प्राप्ता संदेखारा" 完如小 小谷 毕兵站山다. 가끔 双 刻尘水 설명하기 곤간한 난해한 실대인어에 무고 있지만 고려인과 괴국학생들에게 就到了 叶子刘正 以对 外侧 叫字 就生就以下 日刊了了 Xh 多好好到 2/21十十 百年元 시번 태 (2017년)에 알로나는 나는하고 싶어하고 그 중에서 알리프와 유나는 제가 १७९२०11 इंड्रेगार्स एएमा ९६०३३ ९६६ इंपर्डिल 한국이이 관심은 가지 봅니다. るれ भिर्मा

19:04.20112



###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개성사업 평가회 개최

#### 홍상영 사무국장

지난 1월26일 경기도 제2청에서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성지역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개성지역 사업은 개풍시 개풍동의 개풍양묘장 묘목생산사업과 개성과 인근지역에서 진행하는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남쪽 전문가의 의견과 북측 전문가의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북측의 의견은 개성방문시 청취한 내용입니다.

### 개풍양묘장 사업에 대해



### 강승호 개풍양묘장 지배인

"개풍양묘장의 수종과 묘목에 대한 평가가 높아 인민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생산도 되기 전에 묘목을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측의 경기도와 협력하여 양묘장을 꾸렸고 남측에서 지원한 수종이 많이 있기에 인기가 좋습니다."

"2009년 가을부터 2010년 봄까지 14만본 정도의 묘목을 생산하여 황해남북 도 지역 개성, 장풍, 금천, 배천, 청단, 서흥 지역의 임야와 소학교, 기업소 등지에 조림용으로 공급하였습니다."



#### 김종진 건국대 교수, 개풍양묘장 기술 자문

"2008년도부터 조성되어 짧은 시간 내 이 정도의 양묘장을 구축해 놓은 점은 매우 성공적이며 훌륭한 결과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기술부족, 적정 지원시기의 유실, 관리부족 등으로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한 경험의 축적으로 실패는 되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기분좋은 방문 경험의 하나는 그들 스스로 양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수종을 대상으로 양묘기술을 개발하는 모습이었다. 분명 여러 차례의현지 답사를 통해 포지에서, 또 비닐온실에서 다양한 수종이 자체적으로 시험되고

있는 모습은 이 양묘장을 그들의 소중한 양묘장으로, 소중한 일터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매우 중요한 모습일 것이다."

### 말라리아 공동방역 사업에 대해



박재원 가천의대 교수, WHO 말라리아 방역 자문

"예년과 달리 세계보건기구의 말라리아 관리 지침에 맞춰 방역물자가 전달이 됐고 이에 따라 방역지원사업도 훨씬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방역지원물자의 선정이나 방역방향은 훨씬 진전되었고 지원물품선정에 대해 북측에서도 만족해 했습니다. 그러나 물자전달이 지나치게 늦게 시작되어 말라리아 호발시기에 제때 지원하지 못하여 매우 아싑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사업대상과 규모도 확대해야 합니다."

"북측의 말라리아 담당자들은 아무래도 외부접근이 쉽지 않기에 세계보건기구의 정책 변화등 국제조류에는 밝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라리아에 대한 전반적인 지

식수준은 매우 뛰어나고 사업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측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수반된다면 방역지원사업의 수행주체로써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 정성순 북측 의학과학원 산하 기생충연구소 실장, 말라리아담당

"금년도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사업의 방향이나 방역물자의 선정에 있어 잘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물자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말라리아 모기 발생 시기에 제때 사용할 수가 없어 방역효과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방역효과를 내기위해서는 5월초에는 물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방역은 예방과 진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제 감수성저하나 약제내성 출현 등 여러 가지 역학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가 절실합니다." ♣️



### 한 분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8 中山四季州亚岛内台岳

### 북한의 식량상황, 진실이 무엇일까요?

### - WFP 식량 보고서를 통해 본 북한의 식량난

**손종도** 정책팀 부장

#### 식량부족의 결과 - 평안남도 문덕군의 한 의사 이야기

지역의 한 의사는 조사팀에게 남편의 요청으로 어느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던 상황을 전해주었다. 할머니는 얼굴이 퉁퉁 붓고, 몸 은 매우 말랐으며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집에는 식량이 전혀 없었으며 냄비에는 옥수수 죽이 조금 있었다. 할머니는 하루 에 약간의 옥수수와 마른 채소를 조금 먹을 뿐 거의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으며 옥수수가 배탈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의사 는 영양실조. 특히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로 진단했다. 의사는 종합비타민을 처방했고 남편에게는 부인을 위해 쌀과 단 백질 식품을 좀 구해보라고 조언해 주었다. 남편이 비타민을 받으러 병원에 왔을 때 남편은 의사에게 다른 식량을 구할 수 없었 다면서 식량배급은 대부분 옥수수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했다.



####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엇갈린 주장

그러나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국내 언론을 보면 도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북한의 식량 사 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 장합니다. 반면에 또다른 쪽에서는 북한의 식량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나 혹은 북한 당국의 부풀림이 있 기 때문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리고 어렵다 혹은 어렵지 않다는 각각의 주장들이 바탕 하고 있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 WFP/FAO/UNICEF 등 유엔 기구들의 북한 식량 상황 보고서

그래서 지난 3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 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이 지난 2월과 3월 북한을 방문하고 발표한 북한의 식량 상황 보고서 (이하 WFP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WFP 식량 조사단은 지난 2월 초와 2월 중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세 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식 량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지역은 북한의 전체 11개 도 중 9개 도 40여개 군 지역에 이릅니다. 조사단은 현 장 방문과 북한 당국자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 2011년 겨울과 봄철의 수확량. △ 2010년 작황보고서 에서 제시한 2010/11 양곡연도 곡물 수입 역량 및 소 요량 추산치에 대한 갱신. △ 식량 지원의 필요량 산정 리한 주장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을 이번 조사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사단은 또 북한

중앙 당국과 도. 군 지역 관리들과 협동농장. 인민반 관 계자들을 인터뷰했으며 도시와 농촌 지역 122개 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에 더해 WFP 조사단은 북측 당국으로부터 지난 여름철 강수량과 향후 배급 계획량 등 공식적인 자료를 수령하 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지난 8/9월 북한의 강수량이 이전에 비해 매우 많았을 뿐만 아니라 겨울도 평년보다 더 길고 추워 겨울 농사와 봄농사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 다. 겨울밀의 경우 폭우 등으로 늦은 파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겨울밀 씨앗의 발아에도 악영향을 끼쳤 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겨울밀의 평균 생존율이 50% 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감자는 더 큰 충격을 받 았습니다. 저온 현상과 강설량 부족으로 땅에 묻어 보관 한 씨감자가 얼어붙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올 봄의 감자 생산량은 당초 계획의 6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채소 농사도 무척 어려웠 습니다. 8/9월의 폭우로 배추와 무를 심은 곳이 비에 쓸 려 내려가 여러 차례 다시 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 다. 이로 인해 김치도 없이 지난 겨울을 보낸 북한 주민 들이 예전에 비해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 니다.

보고서를 요약하면 2010/11 양곡연도 북한의 곡 물 수입 필요량은 108만6.000톤에 이릅니다. 북한 당 국은 이중 20만톤 가량을 상업적으로 수입할 계획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북한에서 부족한 식량은 88만 6.000톤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곡물 및 유가 상승으

로 북한이 식량을 수입할 능력이 매우 떨어졌다는 점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부족 대처 방법

보고서는 이외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 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북한 주민들은 우선 식사량을 줄입니다. 인터뷰 대상 가정의 2/3 가까운 가정이 1주일 중 최소 하루는 식사량을 줄이고 있으며 1/4은 매일 식사량을 줄인다고 응답했습니다. 약 40%의 가정은 매일 음식의 양을 늘리 기 위해 물을 더 넣는다고 대답했는데. 75%의 가정이 이러한 방법을 주 1회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 다. 식사 횟수를 줄이는 것도 식량난에 대처하는 북한 주민들의 방법입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가정 중 약 1/2 은 인터뷰 이전 1주일 동안 하루 식사 횟수를 1회 혹은 그 이상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또 협동농 장에 있는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60% 이 상의 도시 가정이 협동농장 친척들로부터 최근 6개월 이 내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문 제는 이제 협동농장의 가정들도 친척들에게 도움을 줄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나물과 도토 리. 잣. 버섯 등 야생 식품을 채취하는 것도 북한 주민들 이 자주 이용하는 식량 부족 대처법입니다.

###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 특히 여성과 영유아들 은 만성적인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현재 여성과 어린이들의 경우 만 성영양장애가 32%, 저체증이 18%, 급성영양장애가





WFP가 지원하는 유아원의 어린이들. 2008년 7월의 모습입니다. (사진 출처: WFP 홈페이지 동영상 갈무리)

20 年21日李州3年71年

5%에 이릅니다. 가임기 여성(15세~49세)의 약 1/4 정 다양한 견해와 주장을 접하게 될까요? 혹시 우리는 북한 도가 영양부족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NGO 조 사팀의 보고서에는 평안북도의 어느 고아원 모습도 나옵 니다. 이에 따르면 그 고아원의 아동들은 "상당히 무기 력한 모습으로. 울거나 방문자에게 호기심을 보이는 아 동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누워 있기 만 했다는 게 미국 NGO 조사팀의 전언입니다. 어린이 들의 이러한 모습은 만성영양장애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 입니다. 만성영양장애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연령대의 아동 에 비해 체구가 작은 것이 일반적이고 어떠한 의욕도 없 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12개월이 안된 영유아들이 급성 및 만성 영양장애 상태에 빠질 경우 정 신과 몸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요오드 등 미량 영양소가 부족할 경우 갑상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12개월 미만 영유아의 갑상 선 장애는 100% 정신적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는 게 전 문가들의 지적입니다.

### 북한의 식량 상황을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 여전히 90년대?

WFP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식량 상황은 매우 어 렵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최악의 시기를 북한의 식량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 2009년 현재 북한에서 만성영양장애에 있는 아동 들은 32%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지난 98년에 비해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 지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성영양장애를 앓 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3~5%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식량과 영양 강화식품의 지원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

※미국 5개 NGO들의 북한 식량상황 보고서 번역본과 WFP/FAO/UNICEF의 북한 식량상황 보고서 번역본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홈페이지(www.ksm.or.kr)의 자료실에서 찾을 수



### 어건분의 건성에 감사트립니다

2010년 12월, 2011년 1월, 2월, 3월 성금 및 회비를 기탁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손길에 대한 북녘동포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 후원자명단이 누락되었거나 이상이 있을시 연락바랍니다.

12월	권오근 20,000	김선미 5,000	김지숙 10,000	박민선 50,000	석찬희 10,000	50,000
123	권오훈 10,000	김선배 10,000	김진백 10,000	박병무 10,000	성낙준 5,000	오계환 10,000
	권차현 10,000	김선창 10,000	김진현 10,000	박병섭 30,000	성열찬 10,000	오만순 30,000
(주)대용파마텍	권현진 10,000	김설자 10,000	김진현 9,000	박병우 10,000	손경임 10,000	오문택 50,000
20,000	금강산닷컴(주)					
		김성봉 40,000				
(사)한국여성단	10,000	김성수 10,000	김창연 10,000	박상욱 50,000	손광우 20,000	오소영 30,000
100,000	금휘식 30,000	김성수 5,000	김태순 20,000	박상일 20,000	손덕현 20,000	오수형 10,000
(주)디에이블커머스	길기관 10,000	김성숙 10,000	김학성 10,000	박석앙 10,000	손승호 20,000	오준희 10,000
100,000	길창배 10,000	김성재 20,000	김학신 10,000	박선숙 5,000	손영주 10,000	오형석 20,000
(주)리치스톤 10,000	김갑수 10,000	김성진 100,000	김학진 10,000	박성기 20,000	<del>손</del> 진책 10,000	오혜근 5,000
(주)삼성파워일렉트릭	김강민 30,000	김성철 10,000	김해중 5,000	박성준 10,000	송두헌 30,000	오화선 10,000
20,000	김강훈 10,000	김성희 5,000	김 현 50,000	박성찬 10,000	송상용 10,000	왕정찬 5,000
(주)세진산업개발	김경재 10,000	김소영 10,000	김현성 10,000	박소희 10,000	송상윤 10,000	우성호 10,000
100,000	김경태 10,000	김소희 10,000	김현진 10,000	박수진 10,000	송운학 20,000	우종호 10,000
(주)신도데이타통신	김경화 5,000	김수암 10,000	김형중 5,000	박 순 10,000	송은지 10,000	원동오 10,000
10,000	김계순 5,000	김순옥 10,000	김혜자 10,000	박순성 10,000	송재석 10,000	원종남 10,000
(주)여행이야기	김관식 20,000	김양수 10,000	김호일 20,000	박승호 10,000	송재천 10,000	
10,000	김광아 20,000	김영모 20,000	김홍석 10,000	박애스더 50,000	송재천 10,000	웨스턴테크닉
(주)지담종합건축사	김광열 10,000	김영미 10,000	김홍진 10,000	박영근 20,000	송정배 10,000	719,180
20,000	김광진 10,000	김영수 10,000	김효정 10,000	박영철 10,000	송지섭 10,000	유근호 30,000
(주)창이엔지 30,000	김구철 10,000	김영숙 10,000	김희곤 20,000	박요순 10,000	신기호 10,000	유남길 20,000
(주)클린피에스엠	김구현 10,000	김영주 10,000	김희중 10,000	박용권 20,000	신대걸 10,000	유명희 5,000
20,000	김근우 30,000	김영호 5,000	나선길 100,000	박원규 10,000	신동석 10,000	유성식 10,000
(주)한얼 50,000	김금순.이호준	김완배 20,000	나원연 20,000	박은하 5,000	신동창 20,000	유승주 50,000
감복조 5,000	40,000	김용관 100,000	나은우 20,000	박의용 10,000	신동해 5,000	유시민 10,000
강경중 20,000	김금평 25,000	김용덕 30,000	나종문 20,000	박이현 20,000	신상문 5,000	유원희 10,000
강남준 10,000	김기도 10,000	김용현 10,000	남상돈 10,000	박인숙 60,000	신수억 10,000	유윤숙 5,000
강달호 10,000	김기영 30,000	김용현 50,000	남세현 5,000	박인순 10,000	신순임 5,000	유은향 10,000
강동완 20,000	김기원 10,000	김용희 5,000	남장현 10,000	박재묵 10,000	신염교회 30,000	유인숙 20,000
강선미 5,000	김기은 50,000	김우영 20,000	노관숙 10,000		신용철 10,000	
강섬부 10,000	김기판 10,000	김우전 10,000	노금호 10,000	박정란 10,000	신준석 10,000	유지수 8,500
강승원 20,000	김길자 20,000	김원국 10,000	노정환 20,000	박정숙 10,000	신진현 10,000	유진상 10,000
강승희 10,000	김나홍 5,000	김유경 5,000	노제승 10,000	박정자 10,000	신홍수 20,000	유피에스시스템(주)
강 신 10,000	김 당 10,000	김윤기 10,000	노춘봉 5,000	박종록 10,000	심경란 50,000	30,000
강익범 10,000	김대영 10,000	김은경 10,000	노형래 10,000	박종윤 20,000	심말선 10,000	윤광운 5,000
강정미 5,000	김대영 5,000	김은경 3,000	도재영 10,000	박종의 10,000	심하림 10,000	윤두형 10,000
강정음 10,000	김덕수 10,000	김은숙 20,000	류병욱 10,000	박주현 5,000	심현주 10,000	윤미화 10,000
강지영 50,000	김도규 20,000	김은혜 10,000	류용성 5,000	박지연 20,000	심현희 10,000	윤방원 30,000
강채원 10,000	김동광 10,000	김은희 10,000	류이근 10,000	박지훈 30,000	안동희 10,000	윤병현 10,000
강필희 5,000	김동근 20,000	김응상 10,000	류주현 5,000	박징자 20,000	안명화 20,000	윤서영 5,000
강혜경 10,000	김동분 500,000	김의곤 10,000	류현선 10,000	박현철 10,000	안상화 5,000	윤송림 50,000
강혜영 10,000	김동현 10,000	김인선 10,000	마경화 20,000	박형근 10,000	안세봉 20,000	윤시원 10,000
	김동환 30,000	김일성 100,000	목주승 5,000	박형중 30,000	안승자 10,000	윤연숙 10,000
고권석 20,000	김만수 20,000	김일환 10,000	문경순 5,000	박혜영 50,000	안약천 30,000	
고기철 10,000	김만진 5,000	김장연 5,000	문근영 5,000	박희윤 10,000	안영숙 5,000	<del>윤용근</del> 10,000
고명진 10,000	김만태 5,000	김장훈 10,000	문근재 5,000	반치범 10,000	안정식 30,000	윤은주 20,000
고봉균 10,000	김맹기 10,000	김재광 5,000	문미영 5,000	방문겸 50,500	안정훈 5,000	윤재희 10,000
고석주 10,000	김명연 10,000	김재옥 5,000	문성권 10,000	방양수 10,000	안종금 5,000	<del>윤종</del> 식 10,000
고수석 10,000	김무홍 10,000	김재철 10,000	문 <del>수</del> 정 20,000	방재만 5,000	안종출 5,000	<del>윤종</del> 원 10,000
고승일 20,000	김미홍 10,000	김재호 10,000	<del>문용</del> 식 10,000	방준일 10,000	안준상 40,000	윤창빈 5,000
고이석 30,000	김민곤 10,000	김 정 10,000	문정호 10,000	배대환 10,000	안형재 100,000	윤창섭 10,000
고재철 20,000	김민성 10,000	김정미 10,000	문주연 10,000	배덕호 10,000	양관승 20,000	윤창원 10,000
고정환 10,000	김민제 10,000	김정순 10,000	민경기 20,000	배소영 20,000	양근성 10,000	윤효철 20,000
고창훈 30,000	김방규 10,000	김정환 30,000	민순옥 5,000	배수현 10,000	양문수 10,000	이강기 50,000
고희갑 10,000	김병구 5,000	김정희 10,000	민향석 10,000	배은혜 10,000	양미아 20,000	이강희 5,000
공은영 10,000	김병규 10,000	김종갑 20,000	민현주 10,000	배향란 20,000	양순환 10,000	이경미 5,000
곽 현 10,000	김병수 10,000	김종구 10,000	박경관 10,000	백낙서 10,000	양우성 10,000	이경재 10,000
구국모 10,000	김병준 50,000	김종문 20,000	박경국 5,000	변선애 20,000	양윤정 2,000	이경희 10,000
구수영 10,000	김보연 5,000	김종순 10,000	박경조 100,000	봉미란 10,000	양인보 20,000	이광훈 100,000
구영주 10,000	김삼수 5,000	김종헌 20,000	박기호 20,000	사랑의채널 100,000	양주용 10,000	이국림 5,000
구은경 10,000	김상근 20,000	김종혁 10,000	박남용 50,000	서기원 30,000	양진선 5,000	이규설 5,000
구정희 20,000	김상득 20,000	김주태 5,000	박덕환 10,000	서동화 20,000	양해준 10,000	이근덕 30,000
구종모 10,000	김상범 30,000	김주학 10,000	박동우 5,000	서명호 10,000	양희석 10,000	이근태 10,000
국민호 20,000	김상수 10,000	김주호 30,000	박동호 50,000	서봉은 5,000	어용철 5,000	이근행 10,000
권병오 10,000	김상식 10,000	김준석 20,000	박명기 30,000	서여고2-4 43,000	엄기철 10,000	이금수 20,000
권보미 10,000	김상운 5,000	김준현 100,000	박무영 10,000	서옥주 20,000	엄용수 20,000	이기호 10,000
권숙희 5,000	김석진 10,000	김중수 10,000	박문식 30,000	서정숙 10,000	연규현 10,000	이기화 10,000
권승언 10,000	김석향 5,000	김중호 30,000	박미란 10,000	서희정 10,000	염철 50,000	이길호 5,000
권오근 10,000	김선명 5,000	김지선 20,000	박미화 10,000	석민경 10,000	영농조합법인부광축산	이날재 5,000
	, 0,000		1 10,000	10,000	30-8821072	, , , , , , , , , , , , , , , , , , , ,

이대식 100 이대 100 이대 100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5,000   0,000
이 한한 하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10,000
정근영 10,000 정기석 5,000 정기석 5,000 정기석 5,000 정비명 10,000 정비명 10,000 정보면 10,000 정상모 10,000 정상모 10,000 정상모 10,000 정상편 20,000 정안설 20,000 정안설 10,000 정안설 10,000 정안설 10,000 정안설 10,000 정안된 10,000 정기원 10,000 조기봉 11,000 조기봉 11,000 조기봉 10,000 조기봉 10,000 조기봉 10,000 조의 10,000 전기원에 10,000 전기원에 10,000 조의 10,000 전기원에 10,000 전기원에 10,000 조의 10,000 전기원에 10,000 전기원의 10,000
최수진 5,000 최산으로 10,000 하산으로 10,000 한도로 10,000 한소로 10,000 환소로 10,000 환
선혜정 10,000 이용현 10,000 이용현 10,000 이용현 10,000 이용현 10,000 정국철 10,000 정국철 10,000 조두형 10,000 조두형 10,000 장국원 10,000 강상자원 10,000 강병수 10,000 강성자 10,000 각성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송민규 5,000 송민규 10,000 신만수 5,000 신반성 10,000 양채리 10,000 양채리 10,000 양채리 10,000 양해석 10,000 유라병학 5,000 유라병학 5,000 유래목 10,000 유래목 10,000 유래목 10,000 유래목 10,000 이라반학 5,000 이라만 10,000 이라만 10,000 이라만 10,000 이라면 10,000 이
*************************************
도규현 30,000 류덕용 20,000 문덕용 20,000 문성규 2,000 문성규 30,000 문성유 30,000 박경호 10,000 박경호 30,000 박계용 20,000 박계용 20,000 박기정 10,000 박성의 10,000 박성의 10,000 박성의 10,000 박정식 30,000 박정식 30,000 박정식 30,000 박정식 30,000 박정수 10,000 나장의 10,000 사장환 10,000 상조용식 10,000 상조용식 10,000 상조용식 10,000 안조용 10,000 오용성 10,0
윤기홍 10,000 윤대투 100,000 윤자현 10,000 윤지현 10,000 윤지현 10,000 이경진 10,000 이병진 10,000 이병진 10,000 이병존 20,000 이선장 10,000 이선장 10,000 이선장 10,000 이어구 10,000 이어구 10,000 이어구 10,000 이어가 10,000 이어 10 10,000 이어 10 10,000 이어의 10,000
해경기 30,000 해설 10,000 해설 10,000 한조스님 10,000 환조스님 50,000 황의중 10,000 황의중 10,000 황의중 10,000 기조 10,0
교진광 10,000 교창훈 30,000 교창훈 30,000 교회감 10,000 곽연실 10,000 구주명 10,000 구주명 10,000 구영주 10,000 구영주 10,000 구영주 10,000 권병교 10,000 권양관 10,000 건양관 10,000 건양면 50,000
감상근 20,000   감상특 20,000   감상탁 30,000   감상박 10,000   감상완 5,000   감석만 10,000   감상명 5,000   감선명 5,000   감선명 5,000   감선명 40,000   감성부 40,000   감성부 40,000   감성부 40,000   감성부 10,000   감성부 10,000   감성화 5,000   감성화 20,000   감성화 20,000   감성화 20,000   감성화 10,000   감성화 10,000   감상화 10,000   감양구 10,000   감양구 10,000   감양과 10,
김태순 20,000 김화성 10,000 김화성 10,000 김화선 10,000 김화선 10,000 김화전 10,000 김화전 10,000 김화중 5,000 김화중 5,000 김화중 5,000 김화중 10,000 김화중 10,000 김화장 10,000 나원인 20,000 나원인 20,000 나원인 20,000 나원인 20,000 나원인 10,000 나원인 10,000 나원인 10,000 나장된 20,000 나장된 10,000 노작상 10,000 노작상 10,000 노작상 10,000 노작성 10,000 노작성 10,000 노장원 10,000 무기정 10,000 무당원 10,000 무당원 10,000 무당수 10,000 막당구 10,000 막당구 10,000 막당구 10,000 막당구 10,000 막당우 10,000 막당우 10,000 막당수 10,000 막당수 10,000 막당수 50,000 박당우 10,000 박당수 10,000 박당
박용권 10,000 박용권 10,000 박임용 10,000 박임용 10,000 박임용 10,000 박임용 10,000 박임용 10,000 박임수 10,000 박정구 10,000 박정구 10,000 박정우 10,000 박정우 10,000 박정주로 10,000 바이에

24 Faura Anda 125

스 궫홍졍븰访췶춼ڊ퍵겡똣싊얁맔쪙젱좽쭁뺭뜐휈괁밒멒딞딮섩욧얦밎퍉잒셠뺆휈얆짔용뜌뱴췙뻍구혇뤈,뺥슢탞뭔호쪙쪙뼹짒희적긘뇐찬늏兄峀진호道희겫잒밒희샦뺭샦쭈샦갏듑, 암늌뺭亩쭨蔅뗭 신뵌겝됍셠췸칪뛼约선윘윘윘윘윘윘윘윘윘윘윘뮋识识识识识识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10,000 20,000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000 5,000 5,000 5,000 5,000 5,000 10,000 5,000 10,000 5,000 5,000 5,000 5,000
윤성진 10,000 윤송부 50,000 윤성부 5,000 윤양부 5,000 윤양구 10,000 윤종식 10,000 윤종식 10,000 윤창업 10,000 윤창업 10,000 이경기 50,000 이경기 10,000 이라보 10,000 이근택 10,000 이근택 10,000 이근택 10,000 이근택 10,000 이근택 10,000 이근택 10,000 이라차 5,000 이라차 5,000 이라하 10,000 이라차 5,000 이라차 5,000 이라하 10,000 이라하 5,000 이라하 5,000
이인수 10,000 이입수 10,000 이입성 10,000 이입성 10,000 이집성 10,000 이정수 10,000 이정수 10,000 이정수 10,000 이정수 10,000 이정주 20,000 이중권 20,000 이중구 5,000 이중은 10,000 이전우 10,000 이전우 10,000 이전우 10,000 이전우 10,000 이전수 10,000 이전우 10,000
정자영 10,000 정초용 10,000 정초용 10,000 전출자 10,000 전출자 10,000 전출자 10,000 전설수 10,000 전성대 5,000 전성리 10,000 전성리 10,000 전성일 20,000 전성은 10,000 전성수 10,000 전청수 10,000 전청후 20,000 전체남 10,000 전청후 3,000 전청후 3,000 정경후 10,000 정상원 10,000 정상자원 10,000 정상원 10,000 조산성숙 10,000 조산성숙 10,000 조산성숙 10,000 조산성숙 10,000 조산성숙 10,000 조산성 10,000
주관이 주관이 주관이 주관이 주관이 주관이 구시 10,000 주의의 10,000 자생물 10,000 자생물 10,000 자생물 10,000 차병물 10,000 천명실 10,000 최생명 10,000 최생명 10,000 최생명의 10,000 최생명의 10,000 최생명의 10,000 최생명의 10,000 최생명의 10,000 최양명의 10,000 하양명의 10,000 한당의 3,000 한당의 3,000 한당의 3,000 한당의 3,000 한당의 3,000 한당의 3,000 한당의 10,000 한당의 10,000 한당의 10,000 한당의 10,000 한당의 5,000 한당의 5,0
흥재삼 200,000   흥제표 10,000   흥점수 10,000   흥제표 10,000   흥제원 10,000   흥개설 10,000   흥장점 10,000   흥장점 10,000   흥장점 10,000   흥장점 10,000   흥장점 10,000   흥장점 30,000   강춘원 30,000   강춘원 30,000   강춘원 30,000   강춘원 30,000   강춘원 10,000   난선경 5,000   난선경 5,000   난선경 5,000   난선경 5,000   산성당 75,000   산성당 75,000   산성당 75,000   산성당 75,000   산성당 75,000   산성당 10,000   강춘원 10,000   강춘원 10,000   강춘현 10,000   강춘현 10,000   강동혁 10,000   강동혁 10,000   강청구 10,000   강청구 10,000   강성수 10,000   강성수 10,000   강성수 10,000   강성수 10,000   강성수 10,000   강성수 5,000   감상부 10,000   강성수 5,000   감상부 10,000   감상된 10,00
문박보막 비명용용요요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전병희 10,000 정광에 5,000 정광에 5,000 정망에 5,000 정망한 10,000 정당학 10,000 정당학 10,000 조승원 10,000 조승원 10,000 조수명 10,000 조수명 10,000 조수명 10,000 조수원섭 5,000 조수원섭 5,000 자랑학 10,000 최왕리 10,000 최왕리 10,000 최왕의 10,000 화장의 10,000 항상의 10,000 장의의 10,000 강의의 10,000 강의의 10,000 강의의 10,000 강의의 10,000 각의의 10,000 각의
김용민 35,000 김용재 10,000 김용화 5,000 김오선 10,000 김오선 10,000 김장원 10,000 무당원 10,000 무당원 10,000 막장원 10,000
반당 10,000 안면식 10,000 안면식 10,000 안당 10,000 양당 10,000 양당 10,000 양화식 15,000 오려를 10,000 오려를 10,000 오려를 10,000 오려를 10,000 오라를 10,000 유라를 10,000 아라를 10,000 아라를 10,000 이러를 10,000 이어를 10,000
조향미 10,000 (취고려정보통신 3,000,000 전반스님 5,000 천연회 30,000 최기수 10,000 하세연 20,000 한겨레통일문화때단 3,000,000 한겨레통일문화때단 3,000,000 한경희 10,000 한정희 10,000 강정희 10
강해당 10,000 강해영 10,000 강해영 10,000 강해영 10,000 고천석 20,000 고천석 20,000 고천석 10,000 고청적 10,000 고성주 10,000 고석주 10,000 고석주 10,000 고서적 20,000 고사석 10,000 고수석 10,000 고이석 30,000 고대철 20,000 고이석 30,000 고이석 10,000 고정훈 10,000 고정훈 10,000 고정훈 10,000 과정훈 10,000 가국모 10,000 가장의 10,000 라장나닷성주) 금취식 30,000 김강윤 10,000 김강윤 5,000 김강윤 5,000 김강윤 5,000 김강윤 5,000 김강윤 5,000 김강윤 10,000 김강윤 5,000 김강윤 5,000 김강윤 5,000 김강윤 5,000 김강윤 10,000 김강윤 5,000 김강윤 10,000
김맹기 10,000 김명연 10,000 김명연 10,000 김민교 10,000 김민교 10,000 김민교 10,000 김민교 10,000 김민교 10,000 김명주 10,000 김병주 5,000 김상은 5,000 김상은 5,000 김상은 5,000 김상은 5,000 김성후 10,000 김영후 10,000 김영후 10,000 김영후 10,000 김양후 10,000 김후후 10,000 김후후 10,000 김후후 10,000 김후후 10,000 김후후 10,000 김후후
김종구 10,000 김종은 20,000 김종은 10,000 김종현 10,000 김종현 10,000 김종한 10,000 김흥한 10,000 김흥산 10,000 남정한 10,000 타양각 10,000 타양간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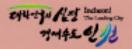
26 ६२। । १२ १३। ५ 27

50,000 30,000 10,000
송상용 10,000 송문학 20,000 송문학 10,000 송재천 10,000 송재천 10,000 산기보급 10,000 산기보급 10,000 산기보급 10,000 산기보급 10,000 산기보급 10,000 산당학 20,000 산동학 5,000 산상문 5,000 산상모 10,000 산온업 10,000 산용철 10,000 산용철 10,000 산용철 10,000 산용학 10,000 산용학 10,000 산양리 10,000 안당리 10,000 안당리 10,000 안당리 10,000 안당리 10,000 안당리 10,000 안당리 10,000 안당의 10,000 안당의 10,000 안당의 10,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10,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10,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10,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10,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5,000 안당의 10,000 안당의 10,000 안당의 10,000 안당라 10,000 양만수용 10,000 양만수용 10,000 양만수용 10,000 양만수 10,000 양만수용 10,000 양만수용 10,000 양다는 5,000 양대를 5,000 양대를 5,000 양대를 5,000 양대를 10,000 양자를 10,000 양자를 10,000 양자를 10,000 양자를 10,000 양자를 10,000 양자를 10,000 양자를 10,000 오차를 10,000 오하를
유윤숙 5,000 유은숙형 10,000 유지수 8,000 유지수 8,000 유지수 10,000 유지수 10,000 윤라형 10,000 윤라형 10,000 윤라형 10,000 윤생전 10,000 윤생전 10,000 윤생전 10,000 윤생전 10,000 윤생전 10,000 윤생전 10,000 윤생전 10,000 윤경보 10,000 윤경보 10,000 윤경보 10,000 윤경보 10,000 윤경보 10,000 윤경보 10,000 윤경보 10,000 윤경보 10,000 유장선 10,000 유장선 10,000 유장선 10,000 유장선 10,000 이강기 50,000 이강기 50,000 이강기 50,000 이강기 50,000 이강기 50,000 이강리 10,000 이강리 10,000 이라본 10,000 이라본 10,000 이라본 10,000 이라본 10,000 이라본 5,000 이라보 5,000 이라보 5,000 이라보 5,000 이라보 5,000 이라보 5,000 이라보 10,000 이라로 5,000 이라보 10,000 이라로 20,000 이라온 10,000 이라온 20,000 이라온 20,0
이영주 10,000 이영훈 10,000 이영훈 10,000 이용균 10,000 이용균 10,000 이용균 10,000 이용균 10,000 이원보 10,000 이원보 10,000 이원보 10,000 이원의 10,000 이임를 10,000 이임를 10,000 이임를 10,000 이임를 50,000 이임병 50,000 이임병 50,000 이임병 50,000 이장보 10,000 이장보 10,000 이장보 10,000 이장보 10,000 이장보 10,000 이장보 10,000 이장보 10,000 이장보 10,000 이장부 10,000 이정수 10,000 이정수 10,000 이정수 10,000 이정수 10,000 이정부 10,000 이장부 50,000 이장부 50,000 이행우 50,000 이행의 10,000 이행우 50,000 이행의 10,000 이행의 10,000
임재민 10,000 임상명 5,000 임충수 20,000 장보호 10,000 전병호 10,000 정보호 10,000 전보호 10,000
조선아 10,000 조선형 10,000 조선형 10,000 조선형 10,000 조선형 10,000 조연희 10,000 조명식 10,000 조명식 10,000 조용진 10,000 조용진 10,000 조용진 10,000 조용진 10,000 조용진 10,000 조하형혁 10,000 조한병 5,000 주관리 10,000 조한병 5,000 주관리 10,000 조한병 5,000 자원이 10,000 자원이 10,000 자원이 10,000 자원이 10,000 차양병실 10,000 차양병급 10,000 차양병급 10,000 차양병급 10,000 차양병급 10,000 차양병급 10,000 차양병급 10,000 한당리 10,000 한당리 10,000 한당리 5,000 한당라 5,000 한당리 5,000 한당라 5,000
한진옥 5,00 한참한 5,00 한참한 5,00 한참한 5,00 한참한 5,00 한참은 10,00 한원은 10,00 한원은 10,00 한원은 10,00 한원은 10,00 흥기호 20,00 흥리와 10,00 흥청사 10,00 흥창사 10,00 양창사 10,00
해도 정유민은 철저 교육은 이 이 열양한다. 전환 전환 전환 전환 하는 하는 사람들은 한
5,000 10,000
이당재 10,000 이면수 10,000 이면수 10,000 이명수 5,000 이명후 5,000 이용병 10,000 이용관 10,000 이용관 10,000 이용관 10,000 이용관 10,000 이용관 10,000 이존의 10,000 이존의 10,000 이전후 10,000 전명후 5,000 전명후 5,000 전명후 5,000 전명후 10,000 정당후 5,000 전명후 10,000 전용 10,000 전용 10,000 전용 10,000 조용원 50,000 조주원 5,000 조주원 5,000 조주원 5,000 조주원 5,000 조전후 5,000 조전원 50,000 조용원 50,000 초명자 10,000 최명자 10,000 최명자 10,000 최명자 10,000 최명자 10,000 최명자 10,000 최명자 10,000 화명수 5,000 최명주 5,000 환경부 5,000
강병택 20,000 강심용 10,000 강심용 30,000 고려정보 통신 3,000,000 고인해 20,000 관형관 10,000 관형관 10,000 건성도 20,000 건성도 20,000 건성도 20,000 건성도 20,000 건성도 20,000 건성표 10,000 건성도 20,000 건성표 10,000 건성도 20,000 건성표 10,000 건성도 20,000 건성도 10,000 건성도 20,000 건성도 10,000 건성도 20,000 건성도 10,000 건성도 20,000 건성도 20,000 건성도 10,000 건성도 20,000 건성도 10,000 건성도 20,000 건성도 20,000 건성도 20,000 건성도 20,000 건성도 20,000 건성도 10,000 건성도 20,000 건성도 20,000 건성도 20,000 건성도 20,000 건성도 10,000 건성도 20,000
박은명 20,000 박재완 10,000 박정식 30,000 박정식 30,000 박정식 20,000 박정은 10,000 박정은 10,000 박정은 10,000 박정은 10,000 배면의 20,000 배면의 20,000 선정아 30,000 성장사 2,000,000 선정아 30,000 성장사 2,000,000 선정아 30,000 성장사 10,000 선정아 30,000 상장사 10,000 선정아 30,000 상장사 10,000 산정나 10,000 산정나 10,000 산장나 10,000 안당나 10,000 안당하나는 10,000 안당하는 10,000 아당하는 10,000
이정철 20,000 이정호 10,000 이정호 10,000 이징호 10,000 이징호 10,000 이징조로 10,000 이현자 10,000 이현자 10,000 이현자 10,000 이런자 10,000 전보의 10,000 정당의 10,000 정당을 20,000 정당을 20,000 정당을 20,000 정당을 10,000 정당을 10,000 정당의 10,000 전배의 10,000 전매의 10,000 한대의 10,000 한지의 10,000 한대의 10,00
(주)대용파마텍 20,000 (주)디에이블커머스 100,000 (주)디시스톤 10,000 (주)리시스톤 10,000 (주)네진산업개발 10,000 (주)네도데이타통산 10,000 (주)네도데이타통산 10,000 (주)네도데이타통산 20,000 (주)시도데이타통산 20,000 (주)시도데이다 30,000 (주)시도데이다 30,000 (주)시도데이다 30,000 (주)시도데이다 30,000 (주)시도데이다 30,000 (주)시도데이다 30,000 강경중 20,000 강경중 20,000 강경중 10,000 강성부 10,000 강정명 50,000 강정대 5,000 강정대 5,000 강정대 10,000 강정대 10,000 강정대 10,000 강제명 10,000 강제명 10,000 고시철 10,000 고시철 10,000 고시철 10,000 고시착 10,000 고시착후 10,000 고시착 10,000 구수명 10,000 구수명 10,000 구수명 10,000 건강분 10,000 건강부 10,000 건강분 10,000
김경화 5,000 김계순 5,000 김계순 10,000 김광악 20,000 김광악 10,000 김광악 10,000 김

28 42111.2.3.4 29

|--|

30 Gardinas 31







인천광역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경북도 온성군 어린이 지원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잭년에는 북한 신의주 수재민을 위해 옥수수 700톤을 긴급지원 하였습니다.